

해룡선월 농공단지 조성 업체 특혜 의혹

30개월내 완료 조건 MOU
공정률 30%서 공기 연장 신청
순천시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줘
원석 파쇄 놓고 인근주민 민원도



순천시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현장. 개발 사업권을 가진 (주)금령이 원석 판매 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기간을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업체에 관계기관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에 시작한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자 방식으로 (주)금령이 개발하고 중국 산둥 후이퉁 장비과기부 유한공사(이하 산둥 후이퉁)가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조성중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지난 2012년 10월 (주)금령과 농공단지 조성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자 3년이 다가오면서 사업속도가 더디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며 문제를 낳고 있다.

개발업체가 제시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업체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 농공단지 개발 업체 지정 취소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이 30%에도 못미친 상황에서 업체는 지난 7월 1년6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고, 시는 업체에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여수산단 등에서 원석이 무상으로 들어오고 점단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원석 반출이 어려워져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사지역의 진짜 이유가 당초 사업설계에는 원석 1㎡당 15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했으나 업체가 기존 가격보다 3배에서 4배 폭리를 취해 유통하다 보니 원석을 원활하게 처리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공단지 개발사업

지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순천시는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인근에 해룡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 업체인 (주)대우건설과 해룡일반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산단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어기면서까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줘 비난을 샀다.

인근 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농공단지 외 기입 유치의 목적이 아닌 특정업체에게 토석채취업 사업권을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선월마을 이장 강성교씨는 "사업 초기 우리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두 달 가까이 시에 항의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면서 "이제 와서 크라셔(돌을 깨는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업체측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1년6개월의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창 풍산면 풍산 제2 농공단지 내에 조성 중인 순창변전소.

풍산 제2 농공단지에 순창 변전소 설치

350억원 들여 내년 하반기 완공...전력 154kV 저장·공급

순창군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가 154kV급 순창변전소를 설치하고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을 저장·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순창 풍산면 풍산 제2 농공단지 내에 조성 중이며, 총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전소가 완공돼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동안 전남 곡성·담양 등에서 원거리로 전력을 공급 과정에 빚어진 저전압 문제와 부하량 증가에 따른 순간 정전 같은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군은 예측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관내 기업체들의 제품생산 차질 등의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성 중인 변전소는 육내변전소로

협업 시설로 인식되던 육외변전소 시설들이 실내로 들어가 조성지역을 오가는 주민들에게도 시각적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었다. 또 변전소 내 소음도 실내로 들어가면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민속 마을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인 투자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변전소 조성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과 수 체험센터 조성, 관광호텔 건립 등 팔덕 수변지구 주변 인근 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점차 늘어나는 전력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인근 농가들도 원활한 전력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숙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순천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순천시가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 주민자치 제도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시상식에서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마을계획 수립이 돋보이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주민자치 제도정책 분야 평가는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실행력 있는 마을계획

수립 사례, 주민자치회 운영사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조직 기반 구축 사례, 다양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도 사례인지를 따져 수상 도시를 정한다.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회장 이항기)는 2019년 2번의 주민총회 운영을 통해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 것과 주민기획단이 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도한 '오소오소 마을 활력소' 운영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완도산 해조류·전북 가공품 美 수출길

10종 4500만원 어치 선적

완도산 해조류와 전북 가공품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완도군은 미국 율타리 USA에 전북 및 해조류 가공품 등 총 10종(4500만원) 수출 선적식(사진)을 가졌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은 홍콩, 중국 상하이에서 이어 미국 LA 현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업무 협약 9건, 수출 계약 8건(750만달러 상당)의 성과를 올렸다.

수출품은 완도 홍일식품과 다시마전북 영어조합법인의 가공품이다.

완도 농공단지에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로 조미김과 김자반 볶음, 김 스낵, 해조류 등을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다시마전북영어조합법인은 2004년 설립한, 전북 도·소매 유통 및 전북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전북뿐만 아니라 전북 가공식품을 국내외로 판매, 수출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율타리 USA(대표 이주영)는 2006년에 설립됐다. 연 매출 70억에 달하는 농·수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로 한국의 특산물 생산자와 직접 계약 후 미국으로 직수입해 미주 지역에 판매 중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정읍시 쌍화차 명품 특화거리 조성 박차

정읍시가 '쌍화차 명품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화차 거리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세무서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길 양쪽으로 총 13개의 전통찻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정읍을 대표하는 도심 거리였으나 환경이 낙후돼 방문객이 감소하며 주변 상권이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쌍화차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환경 조성 및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특화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전통 문양으로 거리를 포장하고 한식 담장·쌍화차 상징 조형물(약타기)·야간 조명·안내 표지 등을 설치했다.

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 각종 전선과 전주를 제거, 안전한 거리를 만들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분기 1만6000원씩

익산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단위지역 거주 어르신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분기 4000원 이내의 목욕권 4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통·지리적 여건상 목욕

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면 지역 거주 어르신이다. 이 목욕권은 지역의 목욕장업소 중 익산시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